



## 영혼 구원과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가정교회

- \* 예배 초청 .....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환영 .....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 다함께
- \* 경배와 찬양 .....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 다함께  
대표기도 .....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 유경주 목사  
광고 .....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인도자  
설교..... 열린 축복의 문 (계 3: 7-13) ..... 이진수 목사  
결단찬양 .....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 ..... 다함께  
축도 .....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 이진수 목사
- \* 표는 일어서서: 몸이 불편하신 분은 일어서지 않으셔도 됩니다



# 헤이워드 침례교회

24742 La Playa Place Hayward, CA 94545 Tel: 510-732-9191  
 Fax: 510-732-1212 교회 홈페이지: [hkb.church](http://hkb.church)

## “약함속의 강함” (고린도후서 4:7-11)

우리의 삶에는 고난과 어려움,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생활 속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끝없이 부딪히는 스트레스의 문제를 이겨 낼 수 있습니까? 고난과 스트레스를 이겨 내기 위해서는 첫째, 나는 약한 질그릇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7 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를 비유하면서 '질그릇이다' 라고 말한 의미는 나는 강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이며 쉽게 상처받고 쉽게 스트레스 받고 주는 존재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약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연약한 질그릇임을 알 때 겸손할 수 있고 서로를 받아들임으로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알아야 할 원리는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우리는 보배를 가진 자임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끝없이 밀려오는 스트레스의 파도에서 승리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힘의 원천이 우리 안에 있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인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닌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계시기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7 절에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참지 못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웃어 넘길 수 있는 것. 옛날 같으면 용서하지 못할 일들도 예수님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능력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나밖에는 몰랐는데 다른 사람의 필요와 마음에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질그릇인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나타나는 예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에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과 사명을 따라 살 때 약함속에서 강함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달려가는 방향을 바로 알때, 사방으로 죄어 들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들 당해도, 거꾸러트림을 당해도 움츠러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 교회소식

1. **중보 기도** -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위하여 기도합니다.
2. **성찬식** - 오늘 예배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3. **부장모임** - 오늘 예배 후에 후 부장모임이 있습니다.
4. **초원모임** - 5월 16일 주일 예배 후에 초원모임이 있습니다.

## 행사 및 모임

5 월	어버이주일행사	5 월 08 일(주일)
6 월	야외예배	6 월 26 일(주일)

##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5/08	5/15	5/22	5/29
대표기도	유경주	조정욱	이강선	홍지원
헌화성도	김현옥		김영란	서소연
봉사당번	따스한목장	동트는목장	둥지목장	섬김목장

## 예배출석자 및 헌금

예배 출석자	주일예배	
	주일학교	
	수요 기도회	
	토요 새벽예배	
지난주 헌금통계	\$ 3,987.37	

## 후원선교지 안내

목장	목자/목녀	연락처	선교사
믿음목장	김정숙	510. 414-8198	유성남 (중국)
나눔목장	유영민/유경애	510. 318-0747	정주환(소망공동체)
섬김목장	이진수/이은진	510. 415-0671	장철호 (미얀마)
동트는목장	홍지원	650. 554-9993	박완주(헝가리집시)
둥지목장	이화선/이인호	510. 915-5578	K 선교사(Malaysia)
따스한목장	김영란/김인수	510. 468-4720	김정림 (탄자니아)
살롬목장	조현숙/조정욱	510. 396-6952	조항권 (우간다)

## 성경공부

새가족 성경공부	4 주
생명의 삶	13 주
확신의 삶	7 주
새로운 삶	13 주
경건의 삶	13 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3 주
말씀의 삶	13 주
<b>TEE</b> 성경공부-12 주	12 주

### 넓은 마음

교회 가까이에 파네라 빵집 (Panera Bread) 라는 곳에 새벽 기도 후에 커피를 마시러 자주 가는 편입니다. 사실 커피를 좋아하기보다 그곳에 꿀이 늘 놓여져 있는데 저는 달달한 맛을 좋아하기에 커피에 꿀과 우유를 듬뿍 넣어서 마십니다. 커피 종류 가운데 '라떼'라는 말이 이탈리아 말로 '우유'를 뜻하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꿀 라떼 커피'를 마시는 겁니다. 늘 일정량의 커피와 우유, 꿀을 넣어서 마시기에 마실 때 좋아하는 단맛의 당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똑같이 '꿀 라떼 커피'를 만들어 마셨는데 달지가 않는 것입니다. "똑같은 양의 꿀을 넣었는데 왜 안달지?" 라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커피 컵을 보니 보통 때는 작은 종이컵으로 마셨는데 그날은 아무 생각없이 큰 종이컵에 커피를 담은 것입니다. 커피 컵이 크니까 단 맛이 약해진 것이지요.

그때 언젠가 읽었던 짧은 글이 떠올랐습니다. 한 스승이 한 젊은 제자를 두었는데 그 제자는 별 일 아닌데도 늘 불만과 불평을 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그 제자를 불러서 작은 물 컵에 큰 수저에 소금을 넣어 한 모금 마시게 하며 물 맛이 어떤지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 제자는 한 모금 마시자마자 인상을 찌뿌리고 신경질적으로 물을 내 뱉으며 "너무 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같은 큰 수저에 소금을 퍼서 큰 대야의 물에 넣고 저은 후에 그 물을 마시게 하고 "맛이 어떠냐? 짜지 않느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는 "전혀 안 짭니다. 그저 시원합니다" 라고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생의 고통은 소금과 같다. 그런데 짠맛의 정도는 담는 그릇에 따라 달라진다. 네 속에 불평과 원망, 고통이 있다면 네 마음이 컵과 같이 작은 것이다. 작은 컵이 되지 말고 넓은 호수가 되어라"

우리가 살다보면 생각지 않은 짠 소금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로 불평하게 만들고 화나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한 짠 소금이 내게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 짠 소금이 아니라 얼마나 내 마음이 넓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넓다면 아무리 짠 소금일지라도 아무런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좁기만하다면 그 고통은 견디지 못하게 짭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 인간적으로 원하지 않는 고통의 소금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소금은 피해야 할 대상도, 싸워야 할 대상도 아닙니다. 오히려 품어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허락 속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 고통이 어떤 불평의 요소가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아직 작은 컵에 불과한 겁니다. 그 고통을 느끼지 않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호수의 크기로 넓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짠 맛 대신 시원한 맛이 느껴지게 될 겁니다. 빌립보서 2:5 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그 넓은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덮어 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라는 넓은 마음의 신앙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 예배 및 모임 안내 *Worship services & Meetings*

주일대예배 <i>Sunday Main Service</i>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본당 <i>Main Sactuary</i>
어린이예배 <i>Sunday Children's Service</i>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유치부실 <i>Children's Room</i>
영어예배 <i>Sunday English Service</i>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영어부예배실 <i>English Service Room</i>
주일성경공부 <i>Sunday School</i>	주일오후 1 시 <i>1:00 P.M.</i>	유년부실 <i>Youth Room</i>
새벽기도회 <i>Morning Prayer Meeting</i>	매일 화-토 6 시 <i>Daily T-Sat 6 a.m.</i>	본당 <i>Main Sactuary</i>
목장모임 <i>House Church Meeting</i>	매 주 <i>Weekly</i>	목장별 각가정 <i>House church member's home</i>

## 섬기는분들 *Church's Servants*

담임목사:이진수 <i>Sr. Pastor: Timothy Y...</i>	510-415-0671	timjdsn@gmail.com
<i>Youth Ministry: Edison &amp; Daniëlle</i>	408-807-7962	edisontung@gmail.com
어린이교회: 이은진 <i>Children's Ministry: Joy Song</i>	510-415-1696	ejoysong@gmail.com

## 교회약도 *Church Map*

